

21년 하반기 산학 포럼 제 4회 자료집

본 저작권의 권리는 소유자에게 있으며, 학술적 용도에 한하여 출처를 표기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록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활용

-한국국학진흥원 일기류 기록유산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이상호 한국국학진흥원 콘텐츠정보팀장

기록유산, 연구에서 활용으로



기록유산 _ 연구자 중심에서 대중의 활용으로

- 기록유산 : 새로운 방향으로의 이행
 - 연구자 및 한학자만의 것 ⇒ 전문가 중심 (한문 고전이 가진 특징)
 - 조선왕조실록의 번역 ⇒ 새로운 가능성
 - ☞ 스토리텔링의 보고
 - ☞ 번역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
 - 민간 기록유산(드러나지 않았던 기록)
 - ☞ 일기/ 문집/ 다양한 고문서
 - ☞ 수집과 연구의 활발 ⇒ 실록과 또 다름
 - 오늘은 일기류 기록유산 중심으로, 이유?

서원 - 거접, 지원은 해도 할 수는 없음

1624년 7월 23일

* 예안의 거접 현장

- 예안현과 안동 향교의 노력
- 지역 유림 전체의 거접 지원
- 역동서원의 거접 지원 : 식사
- 거접을 지원할 수 있는 있지만, '서원'은 거접을 하는 곳일 수는 없음
- 퇴계 이항의 서원관 : 서원 등재 이유



시사단과 번암집 발간, 그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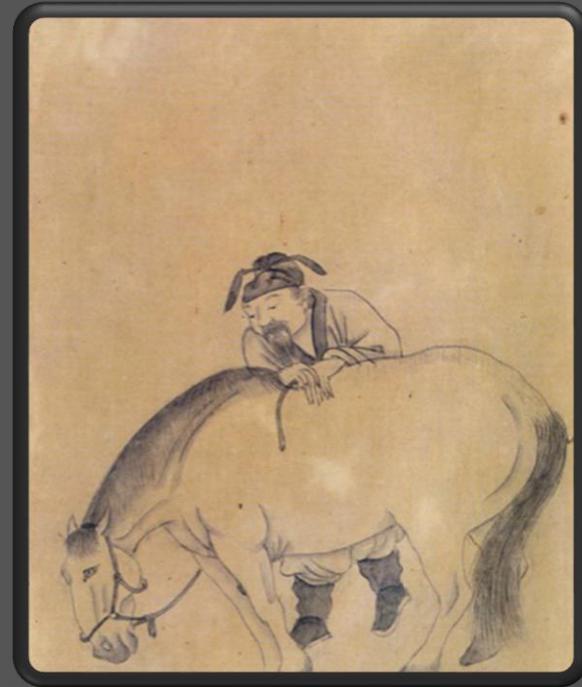
1823년 7월 8일

- * 도산서원의 도회 - 400여 명의 유림들
- 1796년 세운 시사단의 파괴와 새로 건립 필요, 그리고 번암집 발간
- 1799년 번암 채제공 사망시 의리
- 도산별과와 만인소, 번암 채제공의 역할
도산서원과 이황의 위상(도산별과)
- 의리, 지역을 넘어 국가로

말도둑과 살인사건

1616년 7월 11일

- 말 도둑 / 내통한 노비 춘금/말 도둑 추격 대(아들과 노비)/ 체포와 임시거처
- 도망간 말 도둑/ 활을 쏘아 살해/ 살인사건과 말도둑 사건 사이에서...
- 지방의 형사사건의 정확한 처리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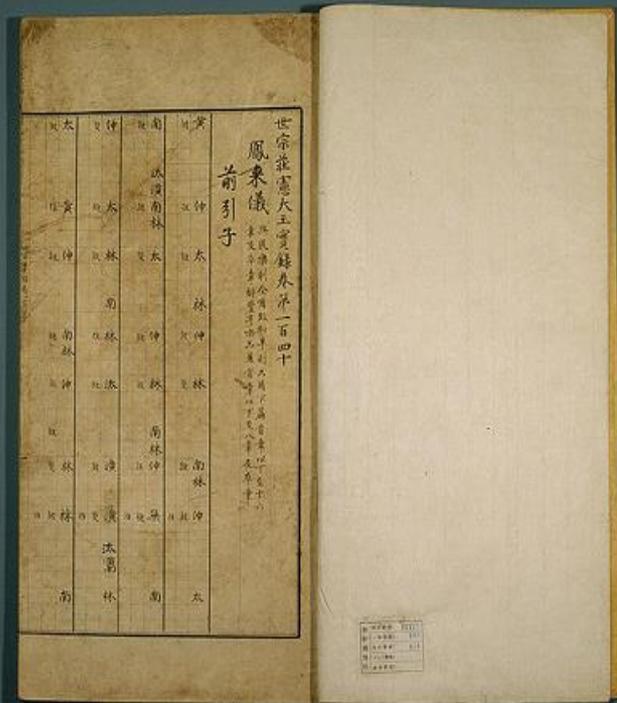
조선 – 기록열을 넘어 기록벽癡으로

- ‘춘추대의’, ‘춘추필법의 기록
- 평가자의 평가(역사적 인간)
 - 기록: 유학의 핵심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

〈조선왕조실록〉

- 사관의 눈이 국가 정책에 관여
- 사초를 공개하지 않는 시스템
- 실록을 보관하려는 노력

〈승정원일기〉, 〈일성록〉



민간의 기록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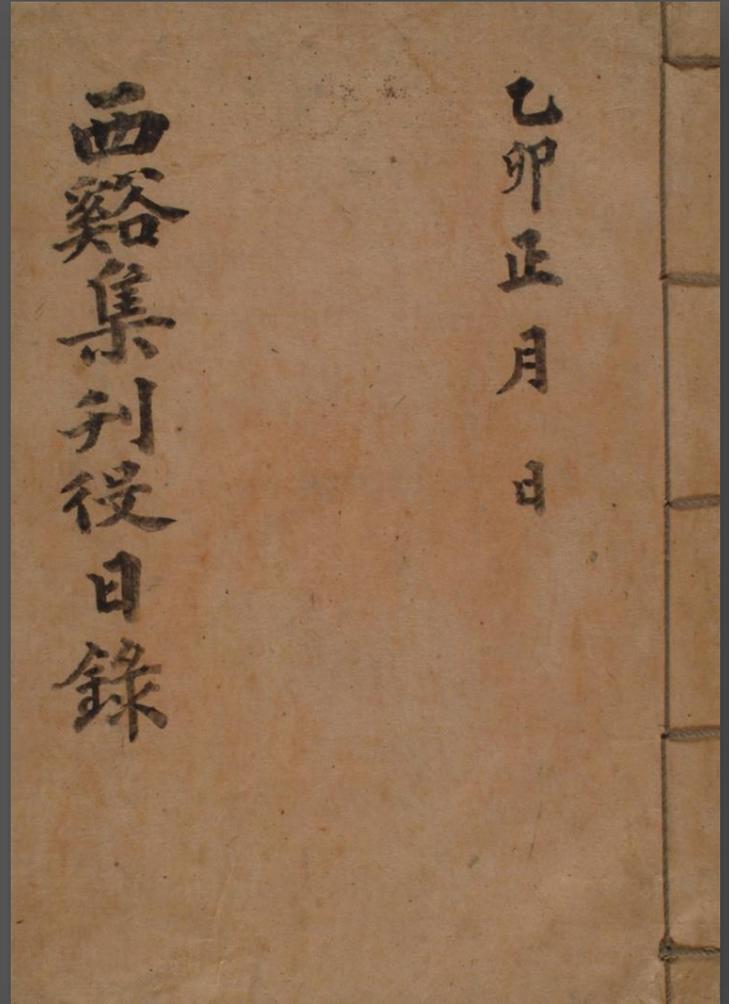
기록 - '유학의 실천'적 차원에서 진행

국가적 기록 - 선비들의 기록문화가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 된 것

기록의 특징

- 매일 매일의 기록이 일상화(생활일기)
- 모든 사안과 사건들을 기록

민간 기록열의 대표적인 사례 - 일기류 기록



공동체 일기

일기종류	내용	대표일기
영건. 영당 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이나 향교를 세우고 짓는 과정의 기록 - 향촌사회에서 공의를 모으는 과정이나 건축 규모 및 그와 관련된 경제 부담 등을 알 수 있는 기록 - 서원이나 향교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 기록 	<p>[山書院廟變時日記] : 도산서원 위패도난과 새위패를 만드는 과정의 기록(1책 80면)</p> <p>[法城日記] : 金尙憲의 배향 서원 건립과 관련되어 찬성과 반대의 갈등을 기록한 일기(1책 308면)</p> <p>[鳳岡影堂營建日記] : 봉강서원 건립 당시의 전말과 투입 예산 및 건립절차 등에 대한 기록</p>
소청. 변무 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소를 올리기 설치된 소청에서 상소를 올리는 전말을 기록한 일기 	<p>[師門追送錄] : 갈암 이현일의 신원을 위한 집단 상소 일기(1책 112면)</p> <p>[疏廳日錄] : 이상정의 고산서원 배향 상소 전말(1책 30면)</p> <p>[闡揮錄] : 영남 만인소를 올리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기록들을 묶은 책(1책 56면)</p>
묘소. 묘비 관련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묘소나 묘비를 세우는 과정, 또는 묘지를 개장하는 과정 등의 일들을 기록한 일기 	<p>[沙金洞立石日記] : 퇴계 둘째 부인의 비문 교체 상황의 전말을 기록(문집에 포함: 35면) [祖妣金氏夫人墓改葬日錄]: 묘소 개장의 과정을 기록한 일기(1책 50면)</p>
문집발간 관련 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집의 발간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논쟁이나 사건 등을 기록한 일기 - 당시 지역 학자들의 입장과 학통 승계 등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음 	<p>[大溪集刊役時日記] : 대계 이주정의 문집 발간의 전말을 기록한 일기(1책 42면)</p> <p>[汾李講誣事變日錄] : [龍巖續集] 발간시 퇴계 호칭문제 관련 문중간 시비 전말을 기록(1책 194면)</p> <p>[先生文集改刊日記] : [퇴계집] 개간 당시 전말을 기록한 일기(1책 32면)</p>

개인일기 1

일기종류	내용	대표일기
사환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직생활의 과정들을 기록한 일기 - 특히 지방관으로 생활하면서 쓴 일기들이 많으며, 이를 통해 당시 지방행정의 다양한 실상들을 확인할 수 있음 	<p>[苟全先生講院日錄] : 이중청이 정음 재직시 朝廷事를 상세하게 기록한 일기(1책 150면)</p> <p>[關東錄] : 김개국이 강원도 도사 재직시 일기(문집에 수록 : 43면)</p> <p>[崇齋日錄] : 김두흠이 崇陵別檢으로 재직할 때 생활 및 개인 신변잡사를 기록한 일기(1책 62면)</p>
유배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비들의 유배와 관련된 전말과 상황을 기록한 일기 - 유배의 과정과 유배지에서의 생활을 세밀하게 알 수 있는 일기 	<p>[庚午日錄] : 조상문집 관련 유배 전말 및 유배지에서의 생활 기록(문집 수록 : 68면)</p> <p>[丙寅日記] : 李秉鐸이 부친의 강진 고금 유배갈 때 따라갔던 내용을 기록한 일기</p> <p>[公山日記] : 조익이 공산에서의 유배생활을 기록한 일기(문집에 수록 : 88면)</p>
여행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의 과정과 함께 갔던 인물, 그리고 견문의 감상 및 시와 기문들을 기록한 일기 - 다양한 지역의 경치와 당시 여행의 문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다양한 문학작품에 관한 일기 - 산을 다니면서 기록한 유산일기도 포함 	<p>[東遊日錄] : 서울에서 금강산으로 유람한 일기</p> <p>[遊淸涼山日錄] : 류진의 청량산 유산록(문집에 수록 : 23면)</p> <p>[海山紀行錄] : 관리로 부임시 금강산을 기행한 일기(문집에 수록 : 34면)</p>
사행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행을 다녀오는 과정을 기록한 일기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박지원의 [열하일기]임 - 당시의 국제정세와 조선의 대외 외교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임 	<p>[皇華日記] : 조익이 서장관으로 사행을 수행하면서 매일을 기록한 일기(문집에 수록 : 87면)</p> <p>[褰三益日記] : 배삼익이 陳思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기록(1책 116면)</p>

개인일기 2

일기종류	내용	대표일기
전쟁, 피난, 의병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 또는 전쟁과정의 피난, 그리고 의병이 일어나서 활동했던 다양한 양상들을 기록한 일기로 대표적인 것이 [난중일기]임 - 당시 전쟁의 전 과정과 참상, 그리고 그에 맞서는 선비들의 정신을 볼 수 있는 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戊申日記]: 이인좌의 난과 관계하여 민간차원에서 대치 일기 [龍蛇日記]: 도세순의 임진왜란 피난 일기 [倡義錄]: 이인좌란에 대한 안동 중심의 창의과정을 그린 일기 [赤猿日記]: 안동 인근의 개화 반대 창의일기
독서, 강학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비들의 개인공부와 서원이나 서당에서 이루어진 강학관련 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廬江記聞錄]: 이우가 부친 이상정을 모시고 호계서원에서 강론한 일기(1책 23면) [杜陵日記]: 유취문이 두릉에서 유정원을 배알하고 講問한 일기 [就正日錄]: 김흥락에게 강문하기 위해 가는 과정을 그린 일기
고종록, 문상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친이나 스승의 임종과 장례에 관해서 기록한 일기 - 유학자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추모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考終日記]: 장인의 임종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기록 [蹈海日記]: 망국후 아버지 김도현이 자살하는 과정을 기록한 일기 [考終錄]: 남한호의 임종과정을 제자이자 친우가 기록한 일기 [靑邱日記]: 향산 이만도가 망국 후 단식 자결하는 과정을 그린 일기
생활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적인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기록 - 일기 작성자의 다양한 삶과 인적 관계양상을 들여다 볼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山天錄]: 이상정의 일대기를 연보형식으로 기록한 일기 [輸聞錄]: 유영희의 1년 생활일기(1책 62면) [日記:辛酉]: 사대부가의 생활일기(1책 131면) [三代日記]: 김두흠과 김병항, 김정섭의 3대에 걸친 일기를 모아 둔 것으로, 총 100여 년에 이르는 일상 풍산김씨 가문의 일기

일기자료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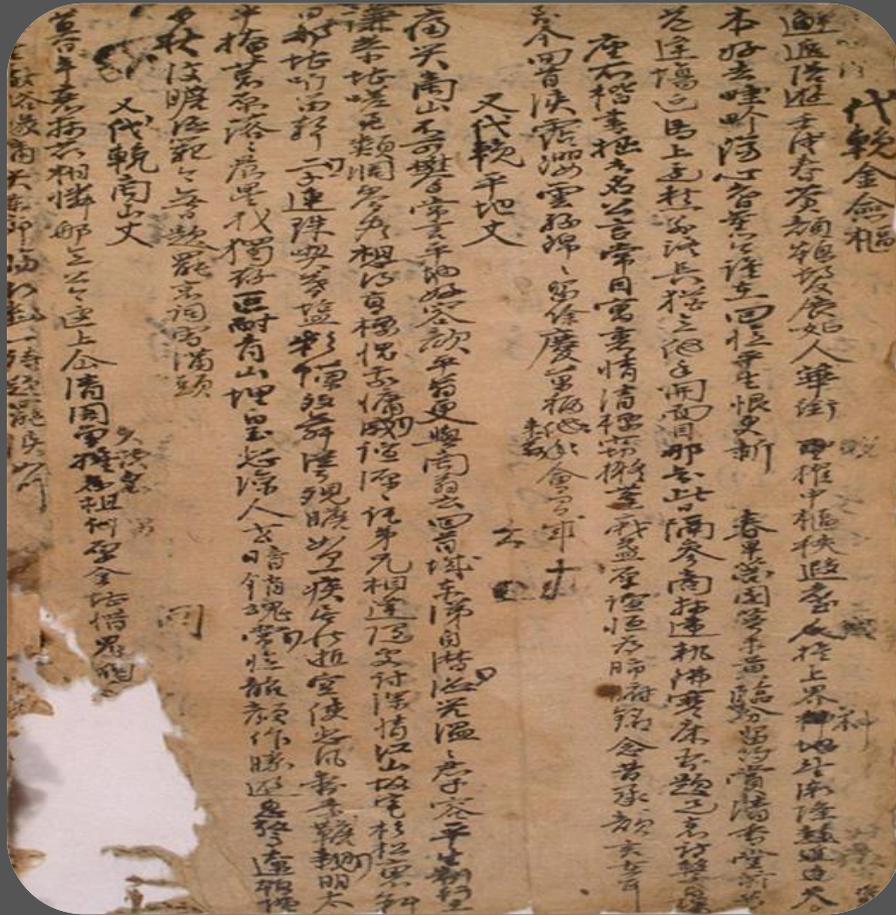
생활사 연구자료

- 조선시대 일상을 살았던 일상인들의 기록 (생활사를 그대로 복원)
- 일상사와 미시사 연구의 가장 중요한 자료로 부각
- 시간, 공간, 기상, 인물 정보 등이 그대로 살아 있는 여과되지 않는 자료
 - 법학이나 경제학, 자연과학 연구의 중요 데이터로 활용 가능

콘텐츠 소재로서의 적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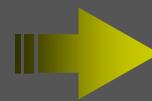
-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답 (왕조중심의 이야기 소재에서 일상인들의 이야기로)
-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세밀한 역주
- 일자별 기록을 통해 사건의 추이나 내용에 대한 세밀한 기록
- 구체적인 사람 삶에 대한 묘사를 통해 현실과 가장 닮은 가상의 세계를 기술하는 데 적합한 소재
- 왕조 중심의 이야기에서 일상인을 중심으로 한 사극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일기, 무한한 가능성과 닫힌 구조 사이



〈하와일록河窩日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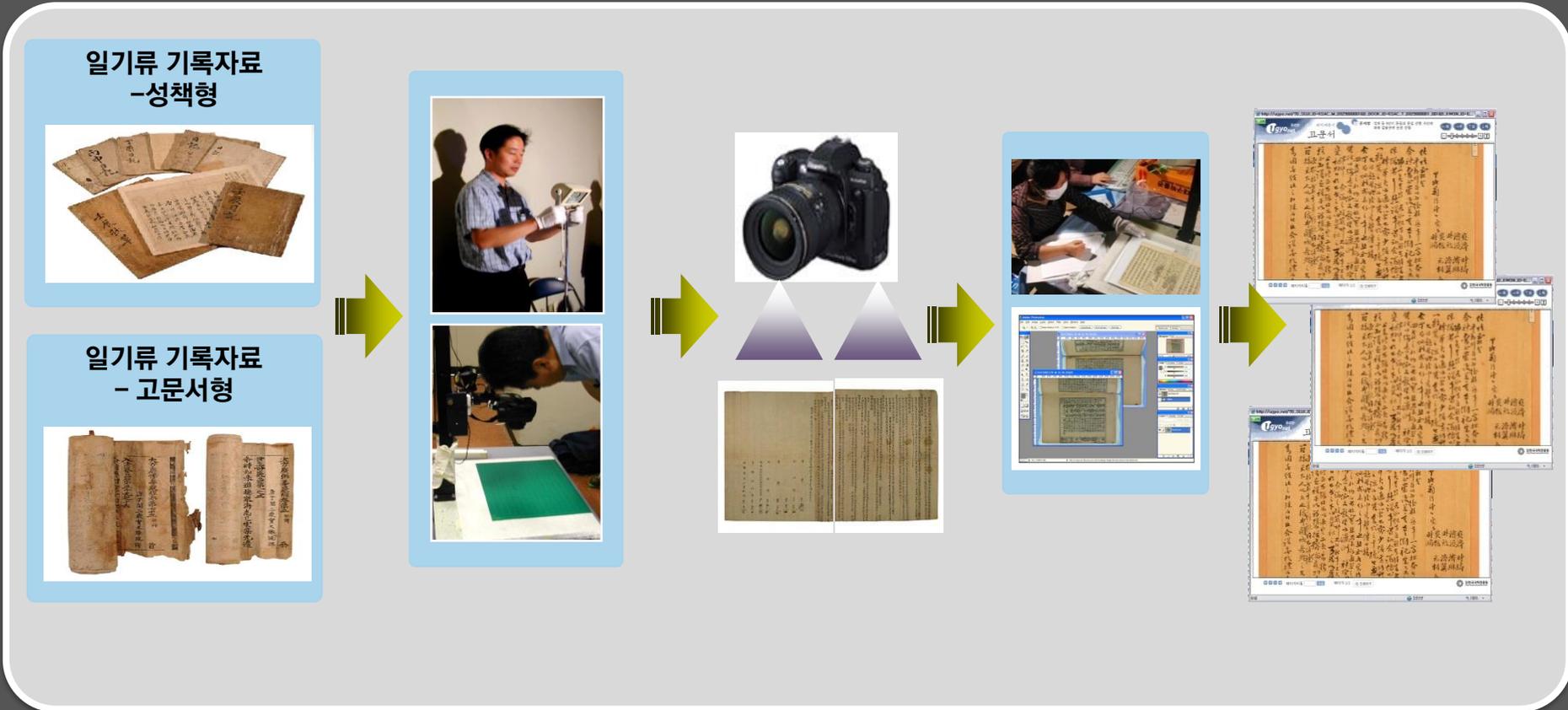
창작자들의 일기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



언어적 장벽

문화적 장벽

보존과 활용의 첫 걸음_DB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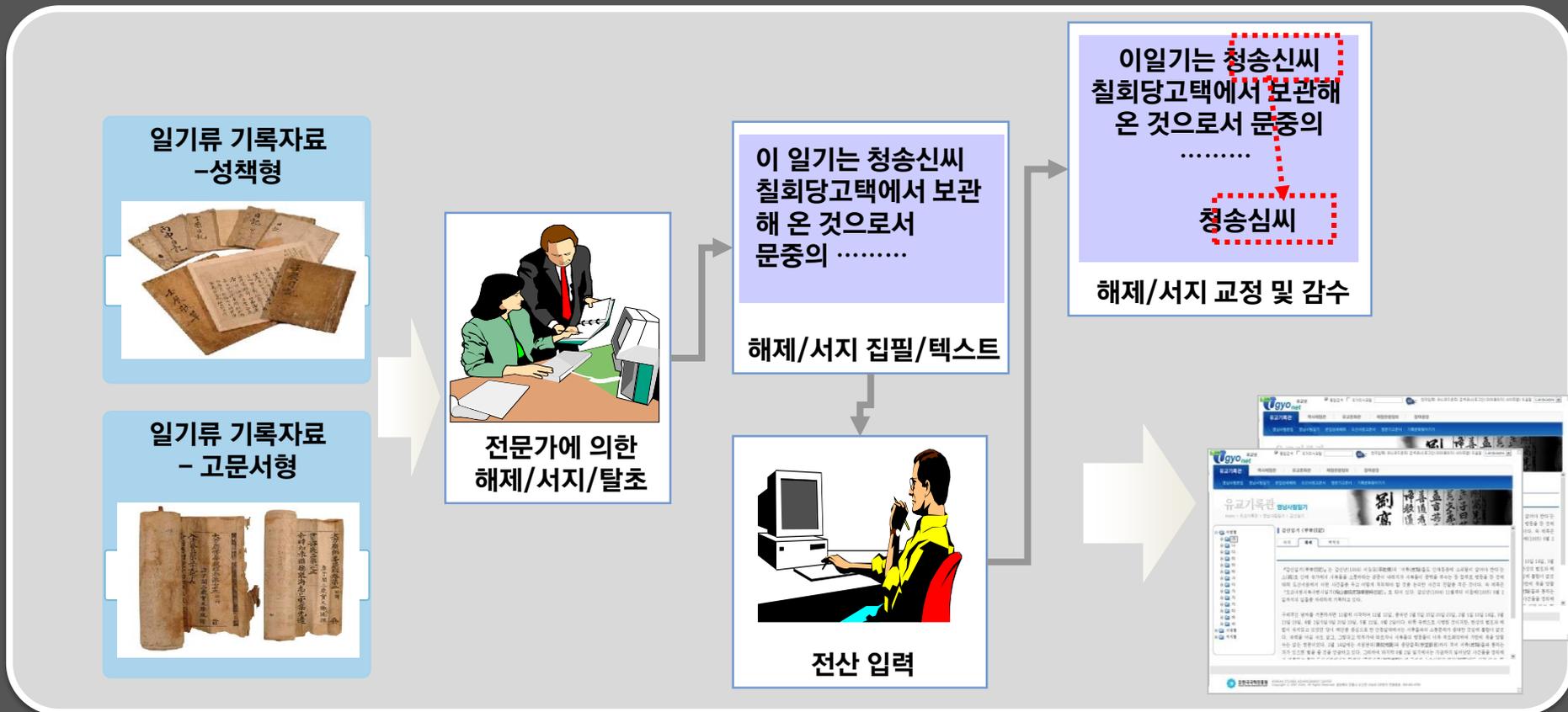
자료인수 및 촬영준비

디지털 카메라 촬영

이미지 검수, 보정

보존과 활용을 위한 첫 걸음

- 보존과 활용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



대상 일기류의 탈초, 해제 집필 및 입력

해제/서지 교정 및 감수



자료 특성에 맞는 DB구축 - 일기

일자별로 입력

- 데이터의 기본 단위를 시간 중심으로 입력
- 시간 중심의 기록은 메타 데이터 연계 가능-실록, 승정원 일기

공간별 메타 요소 입력

- 특정 지역 관련 기록의 검색이 가능

기상정보 추출

- 비온 날, 천둥친 날, 가뭄 등의 기사 검색
- 기상 정보 중심의 연계 가능

주제정보 입력

- 특정 주제를 통해 일기를 검색

텍스트 입력

- 검색엔진을 통해 필요 내용을 검색

일기류 DB서비스

한국국학진흥원

통합검색바로그

전통서적 기록 사이트 바로가기



시간별 / 공간별 / 주제별 / 서명별 / 저자별 / 🔍

선인의 일상생활 일기

선인들의 소소한 생활 기록, 내밀한 생활 문화 생활사 연구의 보고, 조선시대 일기자료



계암일록 (溪巖日錄)

저자: 곽형 (雪城) / 17세기

(七月) 十九日

朝暉。裴翰林自京回。塵止澗清。見招。即往見。蓋內
翰披讀而歸。可談金順命殺之也。午後內翰歸。是日洞

7월 19일

아침에 흐린 배 한림(裴翰林)이 서울에서 돌아오면서 지나는 길에 탁
정(탁정)에 들러서 나를 부르기에 즉시 보러 갔다. 아마 배 내한(裴
내한)이 탄복을 받아 귀향한 모양인데, 시간(時間) 김순(金順)의 눈
박을 받았을 것이다. 오후에 배 내한이 돌아왔다. 이날 동네 사람들이

일기류 DB서비스 - 시간별

한국국학진흥원

연도별 기록 사이트 바로가기

[Twitter](#)
[Facebook](#)
[Kakao](#)

선인의 일상 생활 일기

 시간별 / 공간별 / 주제별 / 서명별 / 저자별

시간별

전체 > 전체 > 전체

전체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13월 14월 15월 16월 17월 18월 19월 20월 21월 22월 23월 24월 25월 26월 27월 28월 29월 30월 31월 일미상

전체

총 140,261개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20

[1625년/09월/12일] (天啓 乙丑九月十二日) / 가야득(伽倻錄) / 가야득(伽倻錄) / 이증무(李貞茂) 이미지

003
伽倻錄。予在宣善時。讀孤雲詩。得伽倻山久矣。近寓其下。起居飲食之若相接也。而頭人事多端。尚未得一涉真境。今得嘉慶鄭善直甫。末朔輔而。李奉一廣甫。林真灼齋翁。許燦德輝。洪根以敬。江陽鄭仁潘德淵。權濬任伯。朴綱伯和。金秀南汝瞻與之聯筇。是日乃天啓乙丑九月十二日也。過清涼潭至武陵橋。此地無一

004
點塵想。遂徐行至紅流洞。徘徊於千巖萬壑之間。凝神於鳥吟水聲之中。遂和孤雲詩一絕句。自家還在是非間。儒仙佛學曾誰辨。獨有詩名重與山。請人亦相繼口號。因命酒算之多小各任己意。午後緣溪而行。其衆石之虎蹲龍攀。飛泉之噴香激雷。心目俱壯。山靜谷幽。形神與寂。所以因地現相。隨觸出奇。樹木蔚鬱。清泉白石之隱映於途傍者。又若月在雲中。時現時隱。其閃忽明晦之相較。勝於全體呈露者之跡之無餘味矣。前後遊之者。能識破此境否乎。古人以鳥鳴山更幽之句。爲山家寂寞中

005
會真語。惟遊心象外者。能知此一般意味也。緩步忙倦。已行十餘里。上九光輝。少歇。呼三寶僧。具夕飯。飯已。僧進松葉茶。頓啜一大椀。頗勝辛草之氣。諸人皆宿於探真堂。余與德淵汝瞻。取其溫處。宿東板閣。平明。會于探真堂。伯和行孟。任伯爲詩色峯。汝瞻爲茶色峯。因行到白蓮庵。有一老僧名曰普靈。見客款接。頗識字。與之談山中故事。聞禪寺創設始末詳細。因留宿其菴。明日至巖堂。諸僧皆面壁而坐。客到若無見。問之。乃參禪僧也。日已暮。又留宿於其庵。

[1625년/09월/15일] (十五日) / 가야득(伽倻錄) / 가야득(伽倻錄) / 이증무(李貞茂) 이미지

曉飯后。令壯健一和尚。負午飯一箇而前導。是日卽十五日

006
也。上華天臺。自此山益峻路益險。林木叢雜。僅僅俯伏。而行至一處。有石窟。可知房室數間許。從石門而入。冷氣砭骨。僧云。此處積冰成堆。至六月始消。九月復有冰。過冷不可久留。又凌鷄扶曳而上。有一穴。直通山腰。長可三四十步。廣數丈許高可四五尺。低首曲躬而出。突然天開。乃星州地也。異哉。造物者之所施設也。中有泉水。自石間出甚清冽。遂圍坐午飯於其邊。掬水而飲。乃上牛首峯。勢甚危險。脚戰足跳。一步二步百艱千辛到頭。乃伽倻絕頂。呼吸之氣。直透帝座心胸爽豁。悠悠蕩蕩。縱目四望。山自五臺而來。西北

007
則佛裕金猿橫亘於數百里之間。遙絕眼界。而東南之山。無與頽頽。若火旺八公諸山。皆在膝下。目無遮礙。上有二井。相通爲一。天旱不涸。霖雨不溢。甚滿其底嘗之。亦甘冽。名曰牛鼻。以其峯名牛首。故井名牛鼻歟。巖壁間樹木。皆癭屈曲。長不滿數尺。僧云。此中樹木。至五月葉始綻。七月而復凋脫。見其木節間。一年所長。不過二三分許。則數尺之高。不知其幾百年所得矣。俄見雲氣滿。山腹下羃羃不見地恐。日暮而致其窘步。遠理路而下山。至華天臺。草露靡披。山澗水漲。始知驟雨注地。而山上日光清明。蓋雨自中

008
閣。而非從天而降者也。抵寺衣履盡沾。日已昏暮。寺僧具夕飯。而待者已久矣。是夜甘露。以其行役餘困也。

[1625년/09월/16일] 十六日 / 가야득(伽倻錄) / 가야득(伽倻錄) / 이증무(李貞茂) 이미지

일기류 DB 구축의 원칙

자료의 특성 반영

- 시간에 따른 기록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DB설계
- 기상정보와 공간정보를 반영한 DB구축
- 자료전문가(인문학)와 플랫폼전문가의 합작

사용자의 필요 반영

- 시간과 공간, 주제별 네비게이션 제공
- 동일 시간, 또는 동일 공간의 다양한 기록 검색 가능
- 이를 활용한 학자의 요구를 반영

언어적 장벽 해소 2단계_번역



연구 및 문화
콘텐츠로의
활용

콘텐츠 구축의 원칙

사용자 정의

- '일반 국민'은 유저 타겟팅이 아님
- '누가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
- 전문 창작자 : 이들의 Needs에 부합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

- 창작자들의 필요에 부응(정확한 사실 정보 전달)
- 자료 가공 및 제공은 국학진흥원, 창작은 창작자
- 사용자 눈높이와 이해도를 고려한 정보제공

일기 콘텐츠의 활용 가능성 – 창작 모티프

광해군의 알려지지 않은 첫 아이의 생산 기록

- 파란만장한 광해군의 이야기를 꾸미는 데 있어서 새로운 모티프임
- 현대물이나 사극 모두 다양한 창작의 가능성을 열 수 있음

사행, 그 위험한 여행

- 사행는 복합적 이야기 소재로, 그 자체가 영화나 드라마 대상이 될 수 있음
- <황화일기>가 보여주는 다양한 기록이 대표적인 사례
- 명. 청 교체기 국경의 상황, 관문 통과 때마다 내야 하는 뇌물, 외교 사신의 공식 만찬음식을 도둑 맞을 정도의 해이한 왕실 기강

일기 콘텐츠 활용 가능성 - 단위 장면의 세밀한 묘사

과거시험 하루전, 수능보다 더 정성스러운 아버지의 父情

- 수능시험 전날을 묘사하듯, 과거시험 하루 전날을 묘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 시필을 빌리고, 시험답안지와 녹명단자를 준비하며, 고유제를 지낼 준비를 진행

서원 건축, 어떻게 진행될까?

- 서원을 짓기 위한 발의는?
- 자금을 조달하고 실제로 일을 맡기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
- 서원의 원장은 어떻게 정하고, 운영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까?

지방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살인사건이 된 말도둑 사건

- 말 도둑을 잡다가 말 도둑이 활에 맞아 죽은 사건
- 이 사건의 심리과정과 세부적인 갈등 관계에 대한 묘사

사실 정보 중심의
단위별 이야기 소재 제작

- **편년체 단위의 일기를 사건 중심으로 재가공**
- **사건이 발생한 이유와 전개 상황 및 이야기의 중요성 등에 대한 배경 정보 전달**
- **용어 설명 : 어려운 용어와 인물, 공간 정보 등에 대한 설명**
- **멀티미디어 - 시각적인 이해가 필요한 내용은 2D나 3D 제작**

창작자들의 활용 가능성을 반영

단위별 이야기 소재 제작

- 편년체(일자별 기록)로 기록되어 있는 일기를 사건의 전말을 알 수 있도록 가공
- 현대인이 어려워하는 용어는 용어 설명을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
- 사건의 전말과 그것이 가진 의미,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한 해설원고를 통해 왜 그것이 사건이 되고, 그 사건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달

멀티미디어를 통한 이해의 수준 제고

- 공간 정보나 위치의 이동과 관련된 세밀한 정보들은 이미지를 통해 제공하여
-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
- 소품이나 복식, 건축물 등은 3D오브젝트를 제작
- 유산기와 같은 경우는 사진과 같은 2D 이미지를 제작

이야기 소재 구축 - 문화적 장벽 해소

일기류 번역문

갑진년(1604, 선조37)

계암일록(溪巖日錄)

1월 14일
눈이 왔다. 지난 겨울에 의성 향교(義城鄕校)에 도둑이 들어 5성(五聖)의 위판(位版)을 훔쳐 가고 나머지 8현(八賢)의 위판은 모두 뒤집어지고 떨어뜨려 어지럽게 뒹굴었다고 한다. 예사롭지 않은 변고를 두고 모두 의심하기를, 향교의 종(僕)이 어떤 이에게 양심을 품고 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자 이러한 변고를 일으켰다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전의 향교 당번 유생(儒生) 및 향교의 재임(齎任)이 어떤 이에게 원한이 있어서 이런 모함하는 계책을 꾸몄다고도 했다. 이때 장현광(張顯光) 공이 수령으로 있으면서 깨끗하고 검소하기로 이름이 났는데, 혹자는 또 의심하기를, 완악한 아전이 그의 깨끗한 처신을 꺼려서 그를 파직시키기 위해 이 일을 저질렀다고도 했다. 온 고을이 놀라고 시끄러웠으니 그 까닭을 알지 못했다. 감사(監司) 이시발(李時發)이 조정에 보고하니, 조정에서는 경차관(敬差官) 금업(琴+業)을 파견하여 추국(推鞠)하도록 했다.

계축년(1613, 광해군5)

9월 25일
바람이 크게 불었다. 자개(子開)가 근래에 내성(奈城)에 갔는데, 그의 서당에 있던 책을 도둑이 서당이 빈틈을 노려 《논어(論語)》·《맹자(孟子)》·《중용(中庸)》 세 절을 훔쳐갔다고 하여 매우 놀랐다.

갑인년(1614, 광해군6)

2월 18일
맑음. 신언부를 보냈고, 국룡(國龍) 등은 돌아왔다. 밥을 먹은 뒤에 길을 나섰다. 저녁에 음죽(陰竹)에 도착하여 잤다. 충주 위쪽은 곳곳마다 도적(盜賊) 도적(盜盜) : 도둑을 감시하고 지키는 사람들.
이 때 우 엄격하여 공문(公文)이 아니면, 여행하는 사람들은 통과하기가 어려웠다.

3월 3일

맑음. 아침에 승문원에 들어갔더니 저작 윤근이 또 와서 괴롭혔다. 구례(舊例)에는 신래(新來) 사를 뒤에 오래 허참례를 하지만, 뜻밖에 중국의 황태후가 붕어(崩御)하여 조회(朝會)와 저자 마저 정지시켰으니, 반드시 초엿새날이 지나야 허참례를 할 수 있을 것이니, 걱정되고 걱정된다. 감감한 밤에 회자하느라고 말을 달리는 수고뿐만 아니라, 긴긴날에 하루 종일 승문원에 있으면서 저녁까지 지내는 것이 가장 견딜 수 없다. 갑자기 작년 삼정날에 자개(子開)와 함께 일후당에서 술을 마시던 것이 생각났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겠는가?

정사년(1617, 광해군9)

10월 6일
근래 매일 아침마다 안개가 짙게 끼다가 낮이 되면 맑고 따뜻함.
지난 6월에 영천(榮川) 관아 창고에 도둑이 들어 세포(稅布) 오륙백 필을 훔쳐갔는데 군주 조찬한(趙繼韓)이 군졸을 풀어 대인현(大仁縣)에서 잡았다. 도둑은 아내를 셋이나 거느리고 보물로 그 집을 가득 채워놓고 있었으니 참으로 극악한 우두머리이다. 이보다 앞서 풍기의 승지 황시(黃是)와 풍산(豊山)의 이익(李淪)도 모두 도둑을 맞아 수도 없는 물건을 잃어버렸었는데, ...

이야기 소재 작성 지침

- 기본 정보
- 배경 설명
- 원문 정보
-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안
- 시나리오
- 참고 문헌
- 용어 설명
- 원문 텍스트

기본정보

제목	도둑이 극성이므로 민생치안에 집중하다
공간	경상북도 안동 예안
시간	1604년 1월 14일 ~ 1617년 10월 6일
출전	계암일록(김령)
인물	김령, 1577~1641(선조36~인조19)

시나리오

1604(갑진년, 선조37)년 1월 14일, 김령은 지난 겨울에 의성 향교(義城鄕校)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5성의 위판을 훔쳐가고 나머지 8현의 위판은 모두 뒤집어지고 떨어뜨려 어지럽게 뒹굴었다고 한다. 이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향교의 노비가 어떤 이에게 양심을 품고 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고자 이러한 변고를 일으켰다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전의 향교 당번 유생 및 향교의 재임(齎任)이 어떤 이에게 원한이 있어서 이런 계책을 꾸몄다고도 했다. 또한 장현광 공이 수령으로 있으면서 깨끗하고 검소하기로 이름이 났는데, 간사한 아전이 그의 깨끗한 처신을 꺼려서 그를 파직시키기 위해 이 일을 저질렀다고도 했다. 의견들은 분분했으나 그 이유는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을 감사 이시발이 조정에 보고하니, 조정에서는 경차관 금업을 파견하여 조사하도록 했다.
1613(계축년, 광해군5)년 9월 25일, 김령은 이번에는 책 도둑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랐다. 자개가 근래에 내성(奈城)에 갔는데, 그의 서당에 도둑이 들어 그의 책 《논어》·《맹자》·《중용》 세 절을 훔쳐갔다고 한다.
1614(갑인년, 광해군6)년 2월 18일, 김령은 밥을 먹은 뒤에 길을 나서 저녁에 음죽에 도착해서 잤다. 도둑이 심한 탓에 충주 위쪽은 곳곳마다 도적이 매우 엄격하여 공문(公文)이 아니면, 여행하는 사람들은 통과하기가 어려운 지경이었다. ...

용어 설명

5성(五聖)	8현(八賢)	이시발(李時發)	경차관(敬差官)
장현광(張顯光)	감사(監司)	음죽(陰竹)	정여립(鄭汝立)

배경 설명

*조선시대 방법
도둑을 잡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조선시대 도적 관련 치안에 관련되었던 직책은 감사, 포도대장, 기찰, 경차관, 도적 등이었다.
경차관은 1396년(태조 8) 8월에 왜구 소탕을 목적으로 처음 파견한 이후 그 임무가 대폭 늘어나 국방·외교상의 업무, 재정·산업상의 업무, 진제(賑濟)·구황의 업무, 옥사·추쇄(推刷)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그중에서 옥사나 추쇄 관계의 경차관은 죄인의 압송·추국(推鞠)과 범죄 수사, 강도 및 노비 추고(奴婢推考)의 임무를 띠었다. 그 밖의 업무로는 수령의 검핵, 원악향리(元惡鄕吏)의 추환(追換) 등도 있었다.

멀티미디어 제안

의성향교(3D)	위판(3D)	장현광(이미지)	이시발(이미지)
조선시대 방법관련 판표 표			

이미지 구축

현재의 공간과 지리적 위치

왕의 행차는 **벽제관에서** 점심을 들고 잠시 쉬 뒤 임진나루로 출발하였다. 파주 평야에 들어선 행차는 속도를 내어 마침내 장단군(長湍郡)과 마주하는 임진강 남쪽 나루에 저녁 무렵 도착하게 되었다.



사건 관련 공간

1805년 5월 이후 봉강영당 건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권창시(權昌始)는 근의·익흥·예안·봉화·순흥·영천으로부터 예천 땅까지 찾아갔고, 권영흠(權永翕)은 청송·진보·영해·영덕·청하·흥해·연일·경주·울산·



봉강영당 부조지역



봉강영당 전경

경로상 위치와 현재 지점

행차는 용강(龍岡)을 출발하여 함종(咸從)에 도착하였다. 이날 낮에 다시 한 번 왕세자의 건강을 검진하였는데...행차는 계속 되었다. 26일에는 **중산(甌山)**이 도착하였고, 27일에는 영유(永柔)에 도착하였으며, 28일에는 안주(安州)에 도착하였다



분조이동경로를경로(영변)

이해를 돕는 실사 이미지

큰아들 김숙의 아내도 함께 곡하며 작별하자 죽소 일행은 **신주**를 받들고 **향정(香亭)**에 태워 출발했다. 김숙은 요통이 심하여 따라가지 못하고, 셋째아들 김각과 중길, 하인 4~5명이 호송하여 산양으로 갔다.



신주



향정자

3D 구축

전문가 고증
복원

이미지 참고
복원

실물크기
비교대상 삽입

설명태그
삽입

...
모난 옷깃에 포의 무늬를 사용
하지 않는다는 말은 생각해볼 만
한 부분이었으며, 굵은 소매를 단
다는 말은 특별히 이런 마름방식
이 있었다. ...

...
서울을 수복하여 악독한 적들을
소탕하고서는 대가(大駕 왕의 행
차)를 맞이하는 것이 최상의 계획
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이미
놓쳤기 때문에 빨리 영유(永柔 평
안남도, 현재 평원)로 가서 명나
라 대군의 뒤에 머물면서 명나라
군대의 형세를 살펴야 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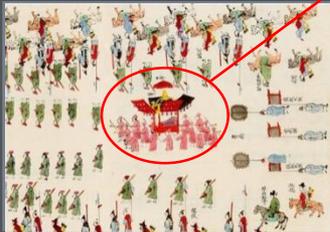
...
멀리서 바라보니 활을 메고 말을
탄 병사가 잘 조련되었으며 깃발
과 무기가 찬란하였다. 화려한
초헌(말이 끄는 작은 수레)을 타
고 오는 자는 날아가는 일과 같다.
...

...
이를 알리기 위해 개석이를 역동
서원으로 보낸 것이었다. 태종은
아들 김숙을 시켜 이 사실을 별유
사(別有司) 김명원과 김광보 등에
게 편지를 보내 알리도록 했다.
...



심의 3D제작

고려시대 중국의 송나
라에서 들어왔으며 조
선시대 유학자들이 입
던 옷으로 머리에 복건
과 함께 착용하였다.



정조정순왕후 가례도감의궤

대가 3D 복원 제작



크기 비교 : 성인 190cm기준



초헌 3D제작



크기 비교 : 성인 190cm기준



역동서원 전경

3D 구축

건축과정 이해

1805년 2월 5일 권이중(權季中)이 낱을 받는 사람에게 길일(吉日)을 물었다. 경상도 안동 산동에 잡은 터를 파는 날은 4월 2일, 주춧돌을 놓는 날은 그 달 22일, 기둥을 세우고 들보를 올리는 날은 모두 24일, 기와를 덮는 것은 29일에 하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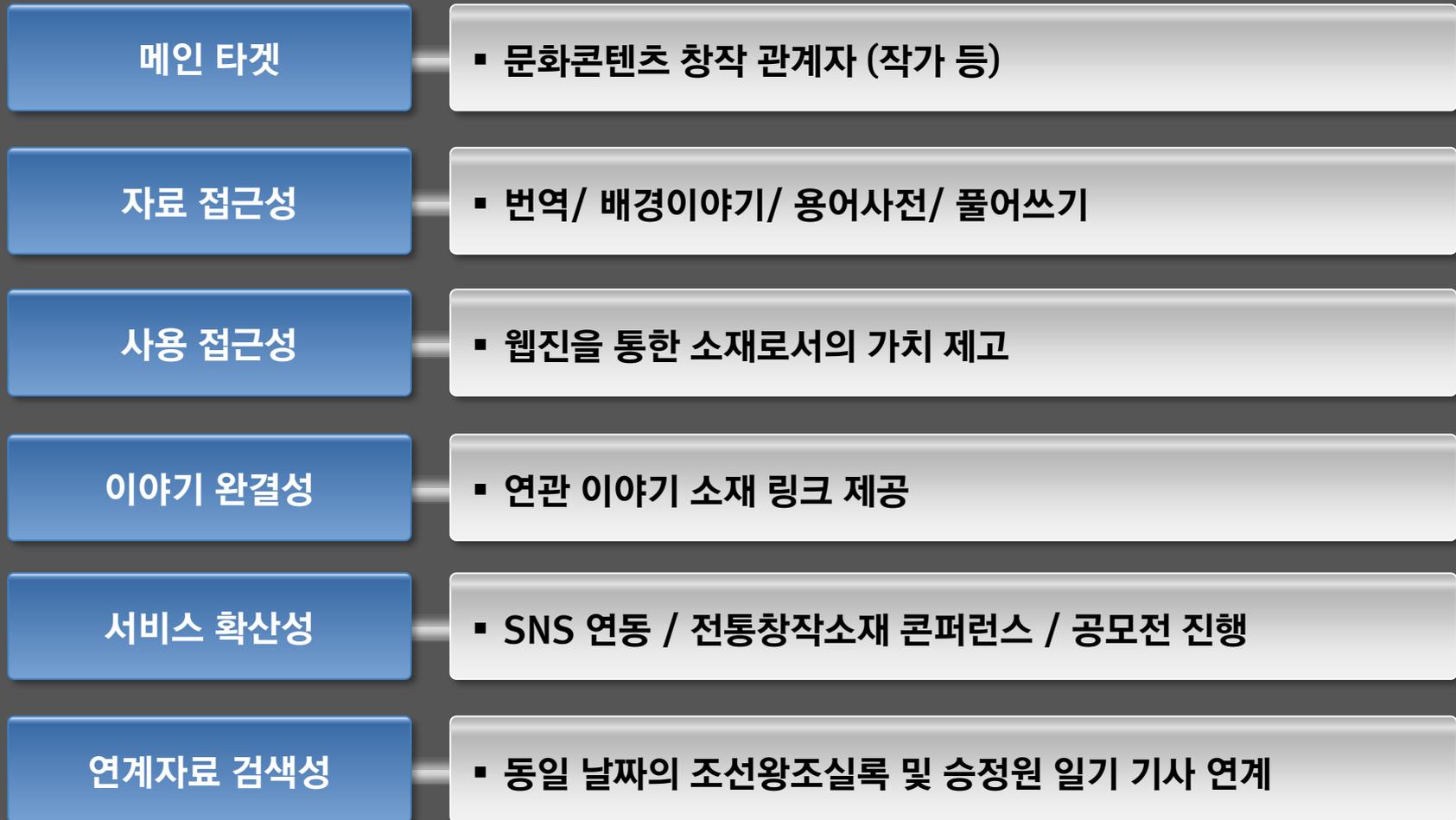


의례절차 이해

...
7월 19일, 심계의 조별덕 어른이 덕으로 돌아가셨다. 7월 27일, 선생의 제헌(忌筵)에 들어가 곡했다. 그리고 홍직필 선생의 만아 들인 오곡 홍일순 어른과 고별했다
...







스토리 테마파크를 통해 서비스

창-작 콘텐츠 공모전 5th 스토리테마파크 최우수 작품 공모전

일기 2019년 11월 9일(토) 11:00 ~ 17:00

한국국학진흥원 통합검색 바로가기 전통과 기록 바로가기

Story 스토리테마파크 - 일기와 생활

공지사항 활용사례 로그인 소개

테마스토리 인물스토리 배경이야기 멀티미디어 일기정보 웹진담당 창작 콘텐츠 공모전 콘퍼런스

선인들의 일기장에서 최고의 스토리를 찾아라!

다들 사람의 일기장을 훑어보는 일처럼 흥미진진하, 일관 많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일기에서 찾아낸 흥미로운 스토리들을 가득담 스토리테마파크에 올리실 것을 환영합니다.

전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웹진 담당 신청하기

활용가이드

용어사전

전통과기록

연대별 스토리

연대를 클릭하시면 해당연도의 선조들의 스토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1300년대 1400년대 15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 창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와 '인물 캐릭터'로 나누어서 서비스
- 검색 및 다양한 접속 경로를 통해 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

웹진을 통한 창작 가능성 제고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Story THEMEPARK. The main banner features a webtoon titled '조선시대 덕후들' (Joseon Dynasty Deokhu) with a '웹진담 68' (Webtoon Talk 68) label. Below the banner are two featured articles: '이 구역의 미친 자는 나요!' (The crazy person in this area is me!) by 김현경 and '우리는 모두 덕후다' (We are all deokhu) by 천준아. A sidebar on the right contains navigation icons for '웹진담', '활용가이드', '용어사전', and '전통과기록'.

창작 콘퍼런스를 통해 공유



- 창작소재 제공 협의체 구성(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적 협의회, 한국국학진흥원)
- 창작소재 제공 기관과 전통 활용 창작들의 광역적 협업이 목표

창작 공모전 진행



- 대학생 대상 학생 공모전(7회) : 유일의 교육형 공모전으로 진행
-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2회): 자문과 협업을 위한 공모전 진행

감사합니다